

정보환경의 변화와 도서관목록의 현단계

An Analysis on the Utility of Library Catalogs in the Changing Information Environments

노 지 현(Jee-Hyun Rho)*

목 차

- | | |
|----------------------|----------------------|
| 1. 서론 | 3. 1 도서관목록의 생산 현황 |
| 1. 1 연구배경과 목적 | 3. 2 도서관목록에 대한 자체 평가 |
| 1. 2 연구방법과 내용 | 4. 이용자의 관점에서 본 도서관목록 |
| 2. 도서관목록의 개념과 목적 | 4. 1 탐색도구로서의 도서관목록 |
| 2. 1 전통적 환경에서의 도서관목록 | 4. 2 식별도구로서의 도서관목록 |
| 2. 2 디지털 환경에서의 도서관목록 | 5. 결론 |
| 3. 생산자의 관점에서 본 도서관목록 | |

초 록

이 연구는 우리 도서관이 생산해 내고 있는 목록의 현단계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고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 도서관목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목록을 생산하는 사서의 관점은 물론이고 목록을 이용하는 최종이용자의 관점을 중시하여 목록의 유용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과연 우리의 도서관목록이 도서관이용자들에게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주요 접근의 경로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가능해보고, 목록생산자의 관점과 시각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보고자 하였다.

ABSTRACTS

This study intends to make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on the present stage of library catalogs in Korea. To the end, this study analyzed the utility of the library catalog from both librarians' and end-user's viewpoint. Emphasis was on analyzing the different viewpoints between these two groups and on verifying the problems of library catalogs in such a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environment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ful in preparing both strategies and methods to enhance the utility of library catalogs.

키워드: 도서관목록, 목록, 편목, 정리업무, 자료조직, 정보조직, 유용성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rhojee@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02년 8월 20일
게재확정일자 2002년 9월 14일

1. 서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우리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양적 성장이다. 양적 성장을 위주로 한 국가정책은 반세기도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의 경제 규모를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 몰두한 나머지 질적 성장을 소홀히 한 대가로 우리 사회는 지금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분야의 기초가 단단해야 하는데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기초가 부실하였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있어서는 도서관도 예외가 아니다. 도서관의 수가 늘어나고 장서의 양이 증가하였지만,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었다는 흔적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도서관이 지식정보자원의 유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수집한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대체물을 만들어 도서관이용자에게 제공하는데서 시작된다. 따라서, 도서관목록은 도서관서비스의 가치를 전문화하고 사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가장 기초적인 도구이다. 문제는 이러한 도서관목록이 양적 혹은 실적 위주의 도서관정책으로 인해 질적으로 매우 부실해졌다는 데 있다. '유용성'이 담보되지 못한 도서관목록은 구축 양이 아무리 방대하다 하더라도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목록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장시간에 걸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도서관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의 도서관 정책입안자들이나 도서관 관리자 등은 단시간에 가시적인 결과를 보려 하고, 우리의 도서관 실무자들은 빠듯한 납품 기일에 맞춰 물건을 찍어내듯 목록을 만들어 왔다. 그 결과,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실적이나 통계에서는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였지만, 품질 면에서 과연 '제대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심지어 목록의 대상이 되는 지식정보자원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전통적인 도서관목록의 존립을 위협하는 새로운 도구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서관목록은 아직까지 '전통'만을 답습하고 있다. 목록생산자들은 여전히 목록의 목적보다는 과정에, 그리고 내용보다는 양과 방법에 집착하게 되고, 목록이용자들은 도서관목록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1차적인 탐색도구로 보다는 2차, 3차의 '보조' 수단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리 도서관이 생산해내고 있는 목록의 현단계에 있는 그대로 조사하고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 도서관목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목록을 생산해내는 사서의 관점은 물론이고 목록을 이용하는 최종이용자의 관점을 중시하여 목록의 유용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과연 우리의 도서관목록이 도서관이용자들에게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주

요 접근의 경로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가능해보고, 목록생산자의 관점과 시각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보고자 하였다.

1. 2 연구방법과 내용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현단계'를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목록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도서관'을 사례로 하여, 각 대학도서관이 목록을 생산하는 목적과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대학도서관의 선정은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대학도서관의 규모와 성격, 지역 내에서의 위상, 그리고 역할 등을 고려하였다. 이유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대학도서관들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함이었다. 둘째, 목록 업무에 있어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서'가 소속된 대학도서관을 의도적으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 우수사례'로 제시된 「이달의 도서관」과 「공동목록 참여기관 및 이용현황」을 참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두 8개의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설립주체에 따라 4개의 국립대학도서관과 4개의 사립대학도서관, 그리고 다시 규모에 따라 2개의 지역중심대학도서관과 3개의 중규모대학도서관 그리고 3개의 소규모대학도서관으로 구분된다.

한편, 각 대학도서관이 목록을 생산하는 현

황을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별로 편목업무를 관장하는 관리자(중간간부)와 실무담당자를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때, 관리자는 목록업무의 전체 내용과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무자는 업무과정에서 나타나는 세부적인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적인 노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선정하였다. 8개 대학도서관에서 모두 18명의 편목담당 사서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때로는 그룹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에 더해, 도서관목록에 대한 최종이용자들의 평가를 분석해 내기 위하여, 도서관이용자 그룹에 대한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인터뷰 대상 이용자는 각 대학도서관별로 연구자가 해당 대학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목록을 이용하고 있던 이용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대학도서관별로 5명씩 모두 40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들의 평가를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다양한 정보탐색도구(가령, 인터넷 검색엔진이나 서점 목록 등)와 비교할 때 탐색도구로서 도서관목록의 유용성과 둘째, 탐색된 결과가 특정 정보요구에 적합한지를 식별하기 위한 도구로서 도서관목록에 기술된 내용의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평가는 도서관목록의 존재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기존의 역할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 주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는 비구조적으로 자유롭게 진행하였다.

이렇듯,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목록을 둘러싼 생산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한 뒤, 이 두 집단에서 발견되는 '괴리'를

통하여 우리 도서관목록의 문제점을 파헤쳐 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의 연구가 도서관목록을 생산하는 방법에만 치중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생산'과 '이용'이라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도서관목록의 근본적인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이 연구는 우리 도서관목록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데 목적이 있기에, 인터뷰 결과의 분석보다는 인터뷰에 참가한 이들의 견해를 그대로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2. 도서관목록의 개념과 목적

2.1 전통적 환경에서의 도서관목록

도서관목록이 현재와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자리잡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커터(Charles A. Cutter)가 1876년 '목록'의 기능을 소개하면서 제시한 원리는 다음과 같다¹⁾: 첫째, 목록이 추구하는 '목적'을 우선 규명할 것, 둘째,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을 제시해 볼 것, 셋째,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선택하는데 근거가 된 '원리'를 제시할 것. 커터가 목록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와 같은 "모든 법칙과 원리는 현상 속에

서 나온다"는 단순한 진리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²⁾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가 표명한 이른바 "목록의 3대 기능"만 중요하게 전해졌을 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커터가 지적하였듯이, 도서관목록의 개념과 목적을 규명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바로 '현상'이다. 지금 이 순간의 현상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도서관목록이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자원에 대한 접근의 경로를 제공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서관목록을 둘러싼 여러 현상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이용자'와 그들의 직접적인 '요구사항'이다.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도서관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된다³⁾: 첫째, 구체적이고 특정한 자료에 대한 요구로서, 자신이 찾고자 하는 자료가 해당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known-item searching")과 둘째, 구체적인 항목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 '주제'에 대해 어떠한 자료들이 있는지(혹은 소장되어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subject searching")이 그것이다.

전자의 관점에서 볼 때, 도서관목록의 개념은 이용자가 알고 있는 항목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각종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1876년 커터가 제시한 "이

1) Elaine Svenonius, *The Intellectual Foundation of Information Organization* (MIT press, 2001), p.4.

2) 커터가 도서관목록의 기능을 규명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시스템이론' (Systems Analysis)이었다. 즉, 시스템의 각 부분들은 전체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의 커다란 '전체' 속에 응집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big-picture"의 관점에서 그 기능과 원리가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커터는 "Systems thinking"을 이용하여 도서관목록의 목적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최초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op. cit.*, pp.3-4).

3) Jennifer Rowley & John Farrow, *Organizing Knowledge: an Introduction to Managing Access to Information*, 3rd ed. (Gower, 2000), pp.24-25.

용자가 알고 있는 저자, 서명, 주제로 특정 문헌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나 “도서관이 무엇을 소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에서, 그리고 1961년 국제목록원칙회의에서 제시한 “한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정 문헌을 저자명이나 서명으로 알려주거나”, “그 도서관이 특정 저자의 어떤 저작을, 또는 어떤 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그 목적이 구체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서관목록’은 문헌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대상에 대해 기술하는 “기술목록(descriptive cataloging)”으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특정 문헌이 지닌 중요한 서지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다른 자료와 구별하고, 다른 자료와의 서지적 관계를 제시하는 것⁴⁾을 중요시하며, 다양한 기술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개발해 온 것이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과다하게 부각되면서, 도서관목록은 ‘물리적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데이터를 정확하게 재현시키는 것’, 또는 ‘기계적인 작업’이라는 인식이 만연해진 것이다.⁵⁾

또한 후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서관목록

은 정보에 포함된 ‘주제’를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다. 즉, 내용을 분석하고 주요 개념을 추출한 후 적절한 용어(혹은 기호)로 변환하여, 이용자들이 지적 ‘내용’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자료를 주제별로 서가에 배열하거나, 모든 주제를 망라하는 ‘주제명표목표’를 개발한 후 이에 근거하여 주제를 일관되게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정보에 포함된 특정 항목을 정해진 형식과 원칙에 따라 단순히 기술하는 ‘기술목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제목록(subject cataloging)”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주제 접근’의 효용성이나 이용자들의 높은 요구에 비해, 도서관목록은 아직까지도 이 기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⁶⁾

이와 같이, 도서관목록의 존립 목적을 이용자들의 요구에 기반하여 정리해 보면, 첫째, 정보자원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일관되게 제시하여, 특정 항목에 대한 탐색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physical accessibility)과 둘째, 특정 주제에 대한 자료를 망라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4) 김태수, 『목록의 이해』(한국도서관협회, 1999), p.28.

5) 도서관목록이 자료에 포함된 데이터를 단순히 타이핑하는 작업만으로 인식된다면, 이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이것은 현재 ‘목록’을 생산하는 일이 단순 반복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만일 ‘도서관목록’이 물리적인 정보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데이터를 정확하게 재현시키는 것이라면 목록 전문가와 목록 규칙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목록은 이 이상으로 훨씬 더 복잡하며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Pat Oddy, *Future Libraries Future Catalogues*, 남태우 외 공역, 『미래도서관의 목록법 이론』(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2001), pp.34-35)

6)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 두가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주제분류에 대해 크게 신뢰하지 않던 파니찌가 1841년 대영박물관도서관 목록의 원리로서 ‘저자명’ 기본기입을 채택하면서부터라고 보는 입장이다. 즉, 파니찌의 영향으로 이 때부터 주제접근에 대한 관점을 등한시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주제 접근을 위한 수단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서구의 ‘개인주의’가 ‘저자 식별’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킴으로써, 저자별 접근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상대적으로 주제 접근을 통한 종합적인 접근 방법에 역력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전계서, pp.31-32).

록 지원해 주는 것(content accessibility)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정보에 대한 '우연한 발견'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명실상부한 "문헌세계(bibliographic universe)를 향해하기 위한 지도"⁷⁾의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환경에서의 '도서관목록'은 어디까지나 '소장된' 자료를 전제로 하였다는 점이다. 즉,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도서관목록이었고, 이용자들은 목록을 훑어본 후 서가에 배열되어 있는 자료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있어서 도서관목록은 소장 자료에 대한 대체물(surrogates)로서, 소장 자료로 안내하는 매개체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정보의 양이 급증하고 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특히 디지털기술과 네트워크 환경을 배경으로 '디지털 정보 자원'이 대량 출현하면서, 도서관목록은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

2. 2 디지털 환경에서의 도서관목록

'도서관목록'의 생산 목적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그 생산방식과 과정은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면서 진화되어 왔다. 특히,

'디지털'과 '네트워크'라는 최근 정보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관념과 관행을 즉각 대체해야 할 정도로 '혁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미 1990년대 들면서부터, 종전의 업무 위주의 전산화는 소장자료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선회되었다. 여기에,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확산은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즉, 이 둘의 결합은 '정보세계'의 다양화와 접근의 용이성을 창출하면서, 정보 이용자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고, 이용자의 증가는 정보의 가치를 높이며 그 양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것은 또다시 이용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상승 효과를 불러오면서, 정보의 효용가치를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다. 도서관에서도 업무를 자동화하고 온라인 목록이나 서지 DB를 통해 서비스 기능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넘어서서, 이제는 소장자료의 원문이나 멀티미디어 정보를 전자 형태로 변환하여 온라인으로 직접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는 도서관이 이 시대에 합당한 새로운 서비스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버클랜드는 지난 50년간 우리 도서관계에 등장한 도서관의 개념을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⁸⁾: 제1세대, 도서관의 업무처리 방식과 소장자료가 모두 종이 매체(paper, cardboard)를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Paper Library"); 제2세대, 도서관의 업무처리 방식

7) Pierce Butler는 약 반세기 전, 서지(bibliography)의 존재이유에 대해 "문명인이 문헌세계를 향해(navigation)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Pierce Butler, "bibliographical function of the library", *Journal of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vol.9, no.7(1953): pp.3-11)

8) Michael Buckland, *Redesigning Library Service: a manifesto*, Chicago and London: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2.

에는 새로운 정보기술이 도입되어 전산화가 추진되었지만 소장자료는 여전히 종이 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Automated Library"); 제3세대, 업무처리 방식의 전산화와 더불어 소장자료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디지털 기반 전자도서관("Electronic Library"). 그의 구분에 의하면, 현재는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된 도서관 소장자료를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제3세대 도서관의 모형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금은 1970, 80년대에 진행된 컴퓨터에 의한 '도서관 자동화'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따라서 제1세대, 제2세대의 서비스 마인드가 아닌, 제3세대에 적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도서관목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제1세대와 제2세대 도서관의 정체성이 보다 많은 자료를 소유하여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하는데 있었다면, 제3세대는 '접속의 시대'⁹⁾로서 '소유'의 개념이 점차 파괴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제1세대와 제2세대의 도서관목록이 단순히 도서관이 무엇을 '소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료를 서가의 어느 위치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었던 반면, 제3세대에 이르러서는 도서관을 통해 무엇에 '접근'할 수 있는지로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¹⁰⁾ 다시 말해, 전통적인 환경에서의 도서관목록은 적절한 통

제와 조직을 통해 '소장자료'에 대한 심도있고 폭넓은 접근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목적에 덧붙여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속점'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의 변화는 지난 1997년 IFLA에서 발표한 '도서관목록'의 목적에도 반영되어 있다.¹¹⁾ 즉, 도서관목록은 첫째, 이용자가 표현한 검색기준에 일치하는 정보를 찾기 위한 것(*to find*), 둘째, 적합한 정보인지를 확인하고(*to identify*), 셋째, 보다 적합한 정보를 선택하기 위한 것(*to select*),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접적인 접근을 통하여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to obtain*)으로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도서관목록은 기존의 단선적이고 선형적인 개념 정의를 탈피하여, 디지털 환경에 보다 적합한 개념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도서관목록'은 소장자료에 대한 일람표('inventory list')라는 개념으로부터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개해 주는 것('information gateway')으로 확대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네비게이션'(navigation)¹²⁾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업무도 간접적이고 기술적인 서비스(technical services)로부터 '접근 서비스'(access services)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¹³⁾

9) Jeremy Rifkin은 『소유의 종말』(민음사, 2001)에서 자본주의가 정보혁명으로 인해 전혀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소유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접속의 시대'(Age of Access)가 도래하였다고 분석한 바 있다.

10) Mary Bath Weber, "Factors to be considered in the selection and cataloging of Internet resources", *Library Hi Tech*, Vol. 17, No. 3(1999), p.300.

11)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Final Report*

3. 생산자의 관점에서 본 도서관 목록

‘도서관목록’은 그동안 외부 세계로부터 격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해 왔다. ‘경쟁’을 통해 새로운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내부’의 논의와 ‘내부’의 시각을 토대로 폐쇄적이고 보수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내부의 원리와 원칙을 중요시하였고, 전통과 규칙에 지나치게 얽매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도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면서 처리속도가 느리고, 이용자들의 기대에 다소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제 도서관목록은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즉, ‘도서관이 무엇을 소장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단순한 리스트로 머물 것인지, 아니면 이용자들에게 보다 적합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관문’으로 그 역할이 확대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자인 사서들은 도서관목록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그들은 과연 어떤 목적과 과정으로 도서관목록을 생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도서관목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이것은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된

도서관목록의 개념과 목적에 비교해 볼 때,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로서, 향후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1 도서관목록의 생산 현황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대학도서관의 아웃소싱 현상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까지 아웃소싱의 대상업무는 많은 비율이 목록업무에 집중되고 있음을 조사한 바 있다.¹²⁾ 실제로 많은 사서들이 “정리업무는 도서관외부(아웃소싱)를 통해 해결가능”할 것이며, 심지어는 “다른 기관이 생산한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이 업무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것은 ‘도서관목록’을 단순히 기계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업무로 보는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기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 전문적이고 고도의 지적 분석 작업에 보다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겠다는 긍정적인 취지로도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자료를 대하고, 다루고, 처리하고, 정리하는 방법과 태도에서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앞서 도서관목록을 생산하는 주

12) 여기서 ‘navigation’이란 기존의 ‘저자, 서명, 주제명’을 통한 접근방법을 탈피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서지 DB를 탐색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즉, 이용자의 정보추구행태와 전통적인 서지기술법을 분석하여, 이용자들이 한 저작과 관련된 저작들을 찾을 수 있도록, 특히, 동등관계, 연상관계, 계층관계 등을 활용하여 관련된 속성들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기능을 의미한다(Elaine Svenonius, *The Intellectual Foundation of Information Organization*(MIT press, 2001), pp.18-20.).

13) Barbara A. Norgard., Michael G. Berger, Michael Buckland, and Christian Plaunt, “The Online Catalog: From Technical Services to Access Service”, *Advances in Librarianship* vol. 17(1993), p.111.

14) 김영귀, “정리업무와 대학도서관의 아웃소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4호(2001. 12), pp.361-394.

목적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정보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개해 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다양하고 복잡해진 이용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도서관을 통해 원하는 자료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주는 것이 도서관목록의 기본 기능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실제 대학도서관에서 '도서관목록'을 생산하고 있는 사서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들은 어떤 목적에서 도서관목록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도서관목록의 목적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이용자들이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일단 우리 도서관에서 어떠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도서관목록을 생산하는 목적은 기관의 성격이나 개인의 인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뷰를 실시한 8개 대학도서관의 사서들 대부분이 “우리 도서관에서 무엇을 소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물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역할과 목적을 강조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소장자료에 대한 안내 도구'로서 도서관목록을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서관목록'이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임은 틀림없지만,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finding list'에 가까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부가서비스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¹⁶⁾과 이용자의 요구수준에 따라 도서관목록은 앞으로 '포털사이트'로 그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¹⁷⁾도 제기되었다.

한편,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외부 환경을 수용하여 전통적인 서비스를 보다 현대화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이 사서들 내부에서 차츰 대두되고 있었다. 이것은 현재의 도서관목록이 현재의 이용자와 현재의 정보 양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에 현실의 장벽

15) A대학도서관 정리과 사서와의 인터뷰: 2001. 7. 24. 15:40~16:50

16) 그 내용을 직접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목록은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하나이다. 과거에 도서관을 통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자료를 입수하였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개인이나 기관, 연구소의 홈페이지, 정보센터 등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경로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들 각각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도서관은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그것은 바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헌을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 기능에 충실하고, 이외에 “+α”를 도모해야 한다.” (D대학도서관 자료운영계장과의 인터뷰: 2001. 7. 26. 15:00~16:30)

17)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해결해 주는 곳이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들이 원하는 주제에 대해 '포털사이트'의 역할은 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한 노력은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서관목록은 소장자료에 대한 안내 역할에 덧붙여,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원을 제공해 주는 기능도 겸비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등장한 '메타데이터'의 개념이 바로 이러한 선상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인력부족'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현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G대학도서관 정리과 주무 및 열람과 사서와의 인터뷰: 2002. 7. 9. 12:00~13:30)

이 너무나도 크다는 데 있다. 특히, 도서관목록을 생산하는 과정과 방법을 살펴보면, 그들이 왜 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못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우선, 현재 도서관 목록이 어떠한 과정과 절차에 따라 생산되는지 살펴보자.

서양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에 대한 목록은 우리가 직접 생산한다. 새로운 자료가 입수되면 '복본 조사'만 실시한 후, 14명의 사서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여 완성한다. 이 때, 편목작업을 하는 담당자마다 다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성'과 '일관성'을 주기 위해 내부 지침을 정해 적용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가 생산한 목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검증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즉, 14명의 사서 각자가 작성한 모든 데이터를 나눠서 서로 교정을 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의논하여 수정한다.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대학의 사서들끼리 상의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다. 다른 기관에서 만든 데이터를 참조하거나 이용할 필요성은 아직까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¹⁸⁾

자료구입과 동시에 반입되는 MARC 데이터를 검토해 본 후, 작년부터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판매하는 MARC 데이터는 업체간 품질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고 정확한 편이다. 따라서 목록을 일일이 작성하는 것보다 비용-효과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 구입된 데이터는 원자료와 대조하여, 필요없는 잡정

보는 삭제하고 일부 데이터만 수정하여 바로 사용하고 있다.¹⁹⁾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서지레코드를 활용하고 있다. 주로 많이 활용하는 기관은 목록의 품질(quality)이 높다고 알려져 있거나 신규자료의 입력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고 평가되는 3~4개 대학도서관의 OPAC과 국가 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 OPAC, 그리고 국내 대학도서관의 지원공유를 목표로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종합목록 등이다. 주로 주제분류가 난이하거나 자료의 특성상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경우에 단순히 '참조'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레코드를 완전히 '다운로드'하여 수정·보완한 후 바로 사용하기도 한다. 인력이 감축되고 작업 적재량이 늘어나면서 이 방식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²⁰⁾

최근 도서관목록을 생산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자관에서 직접 목록을 작성하는 방식(original cataloging)²¹⁾, 둘째, 서지레코드(MARC form)를 구입하여 활용하는 방식²²⁾, 셋째, 외부 기관에서 이미 생산된 서지레코드를 참조하거나 다운로드받아 생산하는 방식²³⁾이 그것이다. 이처럼, 도서관목록을 생산하는 방법과 과정은 최근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커다란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즉, 최근의

18) E대학도서관 정리와 사서 및 전산담당 사서와의 인터뷰 : 2001. 7. 27. 11:00~12:20

19) B도서관 수서/정리계장과의 인터뷰 : 2001. 7. 25. 13:00~14:00

20) F대학도서관 정보지원과 사서와의 인터뷰 : 2001. 7. 30. 15:00~17:10

21) 이 유형은 편목업무의 전문성에 대해 자부심이 상당히 높아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서지데이터를 전혀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국내 대규모 도서관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2) 최근 나타난 '서지레코드 판매상'의 등장은 도서관목록의 생산 환경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비교적 재정적 여유가 있는 중규모 이상의 대학도서관에서 서점이나 출판사, 또는 벤더(외부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지레코드를 '구입'하여 활용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들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터뷰를 실시한 8개 대학도서관 중에서, original cataloging을 하고 있는 1개 도서관과 재정적 여유가 없는 소규모 도서관 2개를 제외한 5개 도서관에서 서지레코드를 구입하고 있었다.

23) 이미 생산된 서지레코드를 자유롭게 참조하고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협력체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학술정보망'을 통해 활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변화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그리고 선형적이고 단선적인 업무 방식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일을 처리하는 근본적인 방식의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어려움은 결코 만만치 않다. 특히, 도서관 경영진의 목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곧바로 목록을 경시하는 풍조로 연결되어 담당부서를 축소 또는 통폐합하거나 인원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다.²⁴⁾ 여기에, 목록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더해져, 목록생산자들은 스스로 기계적이고 비전문적이며 단순한 업무처리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²⁵⁾ 심지어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없을 것이라 믿으며, 기존의 관념과 관행을 순순히 인정해 버리는 회의적인 분위기까지 조성되어 있다. 이것은 새로운 서비스와 목록의 질적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3. 2 도서관목록에 대한 자체 평가

2000년 2월 1일 김대중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도서관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간 소장자료의 공동 활용 및 공유가 가능하도록 기반체제를 구축할 것을 뼈자로 하는 「대학도서관정보화사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종합목록을 전제로 한 대학별 도서관목록 구축 사업을 2001년과 2002년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²⁶⁾ 이에 각 대학도서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2001년 33억원; 2002년 31억원), 지식기반 사회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 중에 있다. 2001년 한 해 동안의 사업시행 결과를 살펴보면, 총 213개의 대학도서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여 약 190만건에 이르는 도서관 목록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⁷⁾

24) 한 사서의 푸념어린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목록의 중요도는 과거보다 훨씬 증대했다. 그러나 ‘경영진’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외부 자원이 많으므로 인력을 줄여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나 집중도가 떨어진다. 목록을 만드는 일은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게 할 만한 역력이 없다. 한편으로는 수백개의 대학에서, 수백명 이상의 사서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이 방법이 최선인지 가끔 회의가 든다.” (F대학도서관 정보지원과 사서들과의 인터뷰 : 2001. 7. 30. 15:00-17:10)

25) 사서들의 불만은 계속 이어진다.

“한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할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담당업무가 보통 2년마다 지속적으로 교체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개별 사서가 가진 전문성은 완전히 무시한 채 어느날 갑자기 새로운 업무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목록’은 이 업무를 처음 담당할 사서뿐 아니라 경력이 많은 사서라 하더라도 일정정도의 교육이 꼭 필요하다. 새로운 사람에게 업무를 익히고 교육하는 데에만 1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역할을 할 때쯤 되면 업무가 바뀐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단순히 기술적인 방법을 습득하는 데에만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A대학도서관 정리과 사서와의 인터뷰 : 2001. 7. 24. 15:40~16:50)

26)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의 공개자료실, 『2001년도 대학도서관 정보화사업 개요』(정보 86640-44(2001. 1.17)호) 참조 (<http://www.moe.go.kr>, 2001년 1월 17일)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양적 성장의 이면에 나타난 무리한 추진계획과 실적 위주의 정책이 가지고 있는 예정된 폐해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도서관목록에 있어서 '유용성'이 담보되지 못한 '성장 지상주의'는 결국 함량미달의 제품을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장기간에 걸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관행을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양적인 고속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치료하고, 이 시대에 걸맞는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까지 생산된 도서관목록의 효용 가치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서들로 하여금 그들이 생산한 현재의 '도서관목록'이 실제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목록은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정확성이나 일관성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생산되는 목록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마저 심각하다고 생각된다. 사서들 개개인 이 보다 철저하고 정확하게 하겠다고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용성이 그다지 높다고 생각되지 않는다.²⁹⁾

현재의 도서관목록은 솔직히 '이용'보다는 '관리' 위주로 고안된 것이다. 일례로, 예전에 12.5×7.5cm 규격의 카드 속에 기입된 내용을 그대로 온라인목록에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 지면의 한계가 사라진 지

금까지 그 때의 내용이 답습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공간의 제약없이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지만, 그 내용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²⁹⁾

업무상 참고하기 위해, 다른 대학도서관의 목록을 자주 보는 편이다. 그러나 필수정보가 누락된 경우도 있고, 한자의 오역이나 오자 등 정확성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참고하려고 해도 실물자료와의 대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형편이니 그 품질에 스스로들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는가?³⁰⁾

생산자인 사서들로부터 나온 '자체 평가' 결과는 이와 같이 부정적인 것이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에 대해 스스로 그 품질과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당연히 현재의 도서관목록이 생산 과정에서부터 '유용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그들이 설명하는 이유를 들어보자.

예전 몇년동안 소급작업을 용역으로 처리한 적이 있다. 계약은 권당 700원, 또는 건당 1,500원 정도였는데, 이 때 만들어진 목록이 현재까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들에 의해 생산된 목록은 품질에 대한 책임 권한이 명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간적 제약으로 실물과의 확인작업 없이 무조건 입력한 것이다. 이후에도 사서들의 업무부담으로 검증작업조차 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레코드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 대학의 목록에 대해 자신할 수가 없다.³¹⁾

전산화가 시작되었을 때, 카드목록을 MARC로 변환하는 작업이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때 만들

27)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의 공개자료실, 『2002년도 대학도서관 정보화사업 국고보조금 신청』자료 참조 (<http://www.moe.go.kr>, 2002년 3월 7일)

28) B도서관 수서/정리계장과의 인터뷰 : 2001. 7. 25. 13:00~14:00

29) G대학도서관 정리과 사서의 인터뷰 : 2001. 8. 3. 10:00~11:00

30) C도서관 동양서DB구축 담당사서와의 인터뷰 : 2001. 7. 26. 10:00~11:50

31) A대학도서관 정리과 사서와의 인터뷰 : 2001. 7. 24. 15:40~17:00

어진 데이터에는 한자 오역이나 오타 등 문제가 많다. 사서들이 직접 확인을 하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변환' 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현재까지도 많이 발견되는데, 발견될 때마다 수정작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신규자료를 생산하는 것보다 수정하는 데 약 2~3배의 노력이 더 든다. 그 이유는 자료를 직접 가져와서 확인해야 하고, 자료가 대출되거나 분실된 경우 현품과의 직접적인 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수정전담반' 또는 '데이터 관리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생산된 목록의 품질을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 정확하고 품질 높은 데이터를 생산하도록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용역에 의해 처리된 데이터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자신할 수 없지만 계속 수정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³²⁾

역시 문제는 과거의 양적 성장에 따른 '부작용'에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1990년대에 대학도서관의 전산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많은 수의 대학도서관들은 소장자료에 대한 카드목록을 MARC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학생을 대거 고용하거나 외부에 용역을 주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때, 체계적인 소급전환 계획조차 부재한 상태에서, 데이터 입력을 위해 임시로 고용한 작업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도 없이, 완료기한에 대한 압박감에 경쟁적으로 서둘러 작업을 진행하고, 특히, 입력 데이터에 대한 품질검증 작업마저 소홀히 한 결과로 부실 레코드들이 대거 만들

어지게 되었다.³³⁾ 이렇게 생산된 결과들이 결국 지금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물론 현재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반복하고 있는 곳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도서관목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한 관리자의 말은 이러한 그들의 노력을 잘 보여준다.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 자체 생산하는 목록은 완벽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담당사서들에게 늘 일관성, 통일성, 완전성을 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연 우리 대학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믿음만하다는 평가를 듣고 싶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리고 경영진의 독촉이 있더라도 신중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다.³⁴⁾

이렇듯, 최근 들어 도서관목록의 효용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 중 현단계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물리적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데이터를 그대로 재현시키는'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줄이는 것이란데 대부분 의견을 일치하고 있었다. 그들은 앞서 살펴보았던 서지데이터의 '구입'이나 학술정보망을 통한 서지데이터의 '공유'가 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내용의 질적인 면에 대한 보강이라고 했다. 가령, 목차나 내용에

32) G대학도서관 정리과 주무와의 인터뷰 : 2001. 8. 3. 10:00-11:40

33) 이계환, "KERIS 서지DB의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모델 개발 및 개선방안 수립"(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1), p.132.

34) B도서관 수서/정리계장과의 인터뷰 : 2001. 7. 25. 13:00~14:00

대한 정보를 보장한다든지, '통합검색' 방식³⁵⁾을 통해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최근 제기된 방법들이었다. 그들은 우선 도서관목록을 생산하는 과정과 방식에서의 변화를, 더불어 내용의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느끼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도, 다음과 같이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붙잡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용적인 면에서의 보강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령, 기본적인 서지정보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목차나 초록을 통해 내용에 대한 접근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체제에서 다양한 방법과 변화를 시도하기가 어렵다. 여력이 없다.³⁶⁾

업무의 성격상 사서들은 계속해서 지금의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 업무를 줄이지 않고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 되도록 단순반복적인 일은 다른 방식(가령, 서지데이터의 구입이나 CIP 이용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이 이외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 중이다.³⁷⁾

4. 이용자의 관점에서 본 도서관 목록

'도서관목록'은 단순히 물리적인 정보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데이터를 정확하게 재현시킨 것 이상으로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

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주는 것³⁸⁾이라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오랫동안 외부의 영향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경쟁 상대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에는 무시할 수 없는 역사와 전통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최근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도구가 다양해지고 이용자들이 전자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정보를 습득하고 이용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즉, 지금까지처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을 지양하고, 이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로서 '유용성'을 제고해 보려는 것이다. 이에, 이 장에서는 이용자들이 그들의 특정 정보요구를 탐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단계 도서관 목록을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 자신들이 필요한 정보를 식별하는 과정에서 현단계 도서관목록에 기술된 내용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4. 1 탐색도구로서의 도서관목록

도서관은 오랫동안 인류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이용자들에게 '통제된' 지식에 대한 접근력을 확장하고 필요한 정보에 명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35) '통합검색'이란 '검색 로봇'을 이용하여 각기 다른 환경에 분산 구축되어 있는 전자저널, 웹 DB, 도서관 목록, 인터넷서점, 국내학회지 서비스 등을 동시에 통합하여 검색(Meta Search)하는 방식을 말한다. 웹 로봇에 의해 각 시스템에서 가져온 다양한 형식의 레코드 포맷은 이용자들에게 동일한 포맷으로 변환하여 제공된다.

36) C대학도서관 정리와 주무와의 인터뷰 : 2001. 7. 26. 10:00~11:50

37) G대학도서관 정리와 사서와의 인터뷰 : 2002. 7. 9. 12:00~13:30

38) Pat Oddy, p.35.

그 결과, '도서관의 이용자는 아무리 큰 도서관이라도 성큼 걸어 들어가 불과 몇 분 안에 책, 책 속의 한 부분, 논문, 또는 더 구체적으로 어느 한 쪽수까지도 거뜰히 찾아낸다. 이런 일은 하루에도 무수히 일어나는 작은 기적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용자들은 어떻게 해서 자신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해지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또 누가 이 정교한 서지통정 구조를 만들어내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³⁹⁾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입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용자들이 최근 선호하는 것은 '인터넷'과 그 속에 있는 '전자형태의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양한 검색방법과 이용자 편의성을 지원하는 '인터넷 검색엔진'에 친근감을 느끼며, 원자료를 '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형태의 자료를 더 선호하는 것이다. 대부분이 '도서관목록' 보다는 아주 최신의 자료를 포괄적으로, 그리고 무료로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 자신의 정보요구를 충족하려는 경향이 많음이 드러났다. 오히려 도서관목록은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그들의 반응을 직접 물어보자.

정보의 양이 급증할수록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는 일이 점점 어려워진다. 따라서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이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보통 내가 찾고자 하는 '키워드'로 정보를 찾아내는데, '도

서관목록'은 대부분 내용적 측면이 이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원하는 자료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포괄적으로 찾는 편이다. 이 때, 검색결과가 너무 방대하면 '결과내 재검색' 등을 통해 그 범위를 점차 좁혀나간다. (E대학도서관 이용자)

인터넷 웹브라우저가 훨씬 편리하고 빠르다. 우선, 키워드 검색이나 카테고리 검색, 그리고 검색제한기능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검색결과도 적절성(relevance) 평가 기능이나 관련자료 연결(linking) 기능이 있어 훨씬 편리하다. 게다가, 자료를 직접 찾으러 가지 않아도 바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자주 이용하고 있다. 꼭 필요한 자료인데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 도서관에서 원문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서관목록을 검색하기도 한다. (G대학도서관 이용자)

자료를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엔진'을 많이 이용한다. 그런데 편리하긴 하지만, 검색결과가 링크되지 않거나 엉뚱한 내용이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장 사용하기 쉬워서 많이 사용하고는 있지만, 정보의 신뢰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한다. (A대학도서관 이용자)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적절한 자료를 충분히 찾아내는 것이다. 즉,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찾아내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정 도서관과 무관하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었다. 이것은 '속도'와 '편의주의'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 '도서관목록'은 어떤 의미일까? 그들은 '도서관목록'을 어떤 목적에서 이용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그들의 이야

39) 마이클 고먼, "전자 문헌 세계의 무질서와 목록의 문제", 김정근 편, 『디지털 도서관: 꿈인가, 광기인가, 현실인가』 (민음사, 1997), pp.283-284.

기를 들어보자.

도서관 자료검색은 대부분 자료의 내용에 대한 탐색보다는 자료의 위치와 소장 여부를 알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자료를 선택하고 평가하기보다는 자료를 직접 찾을 목적에서 많이 사용한다. 여기에, 단일 자료의 내용이나 목차별 주요 내용을 요약해 주거나, 다양한 서평을 제공해 준다면 활용도가 더욱 넓어질 것이다. (B대학도서관 이용자)

도서관목록은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해 준다. 그러나 '인터넷 서점'만 하더라도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기본 정보 외에 자료에 대한 서평이나 미디어 비평, 저자가 쓴 다른 저작, 동일 출판사에서 나온 신간 등과 같은 정보와 책의 표지, 목차, 일부 페이지를 이미지로 제공해 준다. 도서관목록보다 훨씬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 아직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확인하고, 자료를 대출하거나 복사하고자 할 때 도서관목록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이용한다. (G대학도서관 이용자)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물리적인 속성과 소장처를 안내해 준다. 내가 원하는 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을 때는 검색하여 서가 위치를 확인하고 직접 이용하지만, 구체적인 정보없이 일반적인 주제로 검색할 때는 '주제어' 검색이 안되기 때문에 불편하다. (D대학도서관 이용자)

이처럼,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현단계 우리나라 도서관목록은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도서관목록의 기본 목적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탐색'하고, 그 중 원하는 자료를 '식별'하여 '소재위치' 정보를 통해 원하는 자료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대부분 원하는 자료가 도서관의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도서관목록이 그 기관의 소장자료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검색방법이나 내용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관련 주제에 대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찾고자 할 때 인터넷이나 여러 도서관목록을 일일이 검색하여야 하고, 검색된 자료가 '우리 도서관'에 있는지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반복하고 있었다. 물론 '대학도서관 종합목록'이나 '통합검색'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은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있어 '도서관목록'은 아직까지 그들이 원하는 자료를 탐색할 수 있는 도구로서 '충분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용자들은 그들의 정보요구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왜 '도서관목록'이 충분히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아보자.

정보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자료의 원문을 텍스트 형태나 이미지, 사운드 등 멀티미디어 형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대에 있다. 그런데 도서관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료를 검색하고, 서가에 가서 자료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물론 과거에 비해 점점 더 다양해지고 편리해졌지만, 아직 reinvention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대학도서관 이용자)

내가 찾으려고 하는 자료의 서명이나 저자명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에는 도서관목록만으로 찾을 수가 없다. 도서관목록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답답한 경우가 '주제 검색'이다. 많이 사용될 것 같은데, 국내자료의 경우 거의 지원되지 않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서명 단어 검색과 같은 간단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찾는다. (F대학도서관 이용자)

도서관목록은 자료검색과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문용어나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이

있어 쉽게 이용하기는 힘든 것 같다.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첨가하거나 실물을 보고 만지는 것 이상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B대학도서관 이용자)

이용자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종합해 보면, 현단계 도서관목록은 다양한 정보에 대한 충분한 탐색도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다양한 유형의 자료에 접근할 수 없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도서관목록을 '네비게이션'(navigation) 할 수도 없다.⁴⁰⁾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도서관목록은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다. 이제 도서관목록은 기존의 강점을 살리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외부 환경을 수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도서관목록에 기술된 내용적 측면에 대한 보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2 식별도구로서의 도서관목록

최종이용자들에게 있어, 특정 시스템의 선택과 이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얼마나 유용하며, 탐색행위를 도와주는 수단과 방법이 얼마나 적절한지에 있다. 따라서, 도서관목록에 '기술된 내용'은 그들의 특정 요구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적합한 정보를 '식별'하

기 위한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이에, 여기서는 자신들이 필요한 정보를 식별하는 과정에서 현단계 도서관목록에 기술된 내용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그들의 지적을 들어보자.

검색결과에의 '간략정보'만 보고는 과연 그 자료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또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대부분 서명이나 저자, 출판사 등에 대한 정보만 담고 있기 때문이다. '상세정보'로 들어가야 그나마 그 자료에 대해 얼마간이라도 짐작할 수 있다. (H대학도서관 이용자)

도서관 검색결과에는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사실들만 나열되어 있다. 그 내용도 그다지 유용하지 않은 것도 있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서점 목록처럼 주제 카테고리나 내용 요약, 사용자의 평 등이 실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관련 학자들의 코멘트가 조금씩 나온다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G대학도서관 이용자)

인터넷 검색 환경에 이미 익숙해진 이용자들은 도서관목록에 기술된 내용에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현재의 도서관목록에서는 그들이 해당 자료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단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원자료에 포함된 데이터를 특정 형식에 따라 일관되게 옮겨놓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요구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원하

40) 현단계 도서관목록은 선형적이고 순차적인 구조로 연결되어 있어, 서지세계를 자유롭게 향해(navigation) 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즉, 서지적으로 관련된 자료들이 '끈'(link)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들의 탐색행위를 제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연한 발견'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겠다는 '도서관목록'의 기본 목적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용자들은 이미 인터넷 검색 환경과 하이퍼텍스트 방식에 익숙해져 있으며, 복잡한 정보세계를 서로 연결된 '끈'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다.

고 있었다. 다시 말해, 제한된 특정 항목에 대한 탐색(physical accessibility) 뿐 아니라, 특정 주제나 내용에 대해서도 망라적으로 탐색(content accessibility) 할 수 있기를 원했다. 그러나 현재의 도서관목록은 단순히 도서관이 무엇을 소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어, 내용을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면, 이용자들이 수정·보완되기를 원하는 부분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자.

검색결과에서 서명을 제외하고는 찾고자 하는 주제에 맞는 자료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다. 자료를 직접 보지 않고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초록이나 목차 정보라도 지원된다면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 분야의 전문가나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내용을 작성해 준다면 더욱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E대학도서관 이용자)

자료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곳이 '도서관'이다. 많은 정보를 얻고 싶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아쉽다. 우선, 자료가 포함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초록'을 살펴볼 수 있게 하고, 아니면 최소한 '목차'라도 볼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G대학도서관 이용자)

역시 이용자들이 보완되기를 원하는 항목은 초록, 목차, 요약과 같은 '내용'(content)에 대한 정보였다. 이것은 그들이 표현한 검색기준에 일치하는 정보를 찾아, 적합한 정보인지를 확인하고, 보다 적합한 정보를 선택하여 획득하는 등의 모든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인터뷰에 응했던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현재의 도서관목록에 대해 특정 항목을 알고 있는 상태에

서 '자료의 서가 위치를 찾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특정 항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고 이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이 따른다는 지적을 하였다. 즉, 그들에게 도서관목록은 '검색'과 '내용식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장 파악'을 위한 도구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이것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검색된 자료의 표지 이미지와 본문의 일부, 그리고 이용자 논평과 저자 인터뷰, 그리고 각종 매체에 소개된 기사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그들에게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이용자들의 관점에서 도서관목록이 "그다지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5. 결론

배니바르 부시(Vannevar Bush)는 1945년에 오늘날의 '하이퍼텍스트'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도서관의 구태의연한 도서분류와 검색체계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정보의 홍수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이용자는 도서관에 쌓여가는 자료에 점점 더 접근하기가 어려워 것이라 진단했다. 이 때, 부시가 제기하였던 문제가 바로 오늘날의 도서관목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엄청난 비율로 증가하는 정보의 미궁을 뚫고서 지금 당장 중요한 항목을 찾아내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단은 뚝단배를 타던 시절에 사용하던 것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당시 그가 지적한 것은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기

술이 발전하면서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지식이 요구되고 양산되지만, 그 성과들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는 작업이 너무도 미미하다는 것이었다.⁴¹⁾ 비록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오늘날의 새로운 기술과 환경의 변화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잠재된 내용은 과거와 비교하여 큰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 환경에서 디지털 환경으로의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 목록'의 개념과 목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단계 도서관목록을 둘러싼 생산자인 현장 사서들의 관점과 이용자들의 관점을 있는 그대로 제시해 보았다. 이를 통해, '생산'과 '이용'이라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조명해보고, 여기서 발견되는 '괴리'를 통하여 향후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발견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우선 생산자인 현장 사서들과의 인터뷰에서 도서관목록에 대한 그들의 '목적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도서관목록은 이용자들에게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의 경로를 제공해 주는 연결고리로서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도구이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왜, 어떤 목적에서 목록을 생산해야 하는가 보다는 기존의 관념과 관행을 되풀이하는데, 혹은 물리적인 자료에 포함된 데이터를 특정 형식에 맞춰 그대로 재현시키는 과정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 결과, 도서관목록은 '목적' 보다는 '방법'에, 그리고 '품질' 보다는 '양'에 집착하게 되고, 목록생산자인 사서들은 집단적으로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⁴²⁾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식의 결여는 도서관목록에 대한 '그릇된 해석'으로 이어졌다. 전통적으로 도서관목록은 자료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physical accessibility)뿐 아니라 지적 내용에 대한 접근(content accessibility)을 동시에 제공해 왔다. 그러나 현단계 우리의 도서관목록은 '내용'에 대한 접근력을 등한시함으로써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의 경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서들은 "도서관목록=기술목록(descriptive cataloging)"으로 잘못 이해함으로써, 목록을 생산하는 일을 스스로 단순반복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업무로 간주하고 있었다. 나아가, 이것은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이 시대에 적합한 도서관목록으로 발전하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41) 당시 그가 제기한 도서관 시스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어떤 종류의 자료가 보관될 때 그것들은 알파벳순이나 숫자로 분류된다. 그래서 자료를 찾으려면 한 하부 분류에서 그 밑의 하부 분류로 계속 따라 내려가야 한다. 복사본이 없다면 그것은 오직 한 곳에만 있을 것이다. 어느 경로로 가야 그것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우리는 규칙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그 규칙은 성가시다. 게다가 한 항목을 찾은 다음에는 그 시스템을 나와서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경로로 들어 가야 한다..."

(Vannevar Bush, "As we may think", *Endless Horizons*(Public Affairs Press, 1946), pp.17-18. 배식환, 『인터넷,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책의 종말』(책세상, 2000), pp.58-62에서 재인용)

42) '학습된 무기력'이란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 상황을 개선할 수 없을 것이라 믿게 되면서 기존의 관념과 관행을 단순히 인정해 버리고 그 상황을 개선하려는 시도 차제를 포기해 버리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 도서관목록의 생산 체제가 그 역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데 있다. 즉, 처리해야 할 자료의 양과 이용자의 요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도서관 경영진과 실무자들의 목록에 대한 가치는 평가절하되고 편목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점차 감축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목록생산자로 하여금 양적 혹은 실적 위주의 결과물에만 열매이게 하여, 결국 품질이 떨어지는 목록을 생산해 내는 악순환을 되풀이한다. 최근 들어, 서지데이터의 '구입'이나 학술정보망을 통한 '공유', 그리고 '외부용역'을 통해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철저한 계획 하에 진행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지엽적이고 단기적이며, 업무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이려는 대안으로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도서관목록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책을 구체적인 전략과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인터넷 환경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에게, '도서관목록'은 더 이상 과거처럼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많은 방법과 많은 수단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그 중 '도서관목록'이 그들이 원하는 다양한 자료에 대한 충분한 '대용물'이 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여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할 이유를 정당화시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들은 이미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중 80% 이상을 '인터넷'에서 찾고 있다.⁴³⁾ 비록 도서관목록이 내용의 신뢰성, 일관성, 표준성에 대해서는 인정받고 있더라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그리고 편리하게 제공해 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도서관목록에 대한 최종이용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그들에게 있어, 현단계 도서관목록은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리고 탐색된 결과가 자신의 정보요구에 적합한지를 식별하기 위한 도구로서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처럼, 도서관목록은 이미 그 효용성에 회의가 제기되고,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새로운 체제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여기서는 현재 목록을 생산해내고 있는 사서들의 관점은 물론이고 이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최종이용자들의 관점에서 '도서관목록'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았다. 이 두 집단에 의해 표현된 구체적인 내용은 현단계 도서관목록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풀어가는데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43) OCLC Newsletter, "Sarah Thomas discusses the role of the library catalog as gateway to the Internet", May/June 2001, pp.27-29.

참 고 문 헌

- 김영귀. 2001. 정리업무와 대학도서관의 아웃소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4): 361-394.
- 김정근 편. 1997. 『디지털 도서관: 꿈인가, 광기인가, 현실인가』. 서울: 민음사.
- 김태수. 1999. 『목록의 이해』.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남태우 외 공역. 2001. 『미래도서관의 목록법 이론』. 서울: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 원전: Pat Oddy, *Future Libraries Future Catalogues*. London: Library Association Publishing, 1996.
- 배식한. 2000. 『인터넷,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책의 종말』. 서울: 책세상
- 이제환. 2001. 『KERIS 서지DB의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모델 개발 및 개선방안 수립』.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최정태·양재한·도태현. 1999. 『목록조직의 이론과 실제』.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 Barbara A. Norgard, Michael G. Berger, Michael Buckland, and Christian Plaunt. 1993. "The Online Catalog: From Technical Services to Access Service", *Advances in Librarianship*, 17: 111-148.
- Elaine Svenonius. 2001. *The Intellectual Foundation of Information Organization* London: MIT press.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Final Report*
- Jennifer Rowley & John Farrow. 2000. *Organizing Knowledge: an Introduction to Managing Access to Information*, 3rd ed. Vermont: Gower.
- Jeremy Rifkin. 2001. 『소유의 종말』. 이희재역. 서울: 민음사.
- Mary Bath Weber. 1999. "Factors to be considered in the selection and cataloging of Internet resources", *Library Hi Tech*, 17(3): 298-303.
- Michael Buckland. 1992. *Redesigning Library Service: a manifesto*, Chicago and London: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OCLC Newsletter. "Sarah Thomas discusses the role of the library catalog as gateway to the Internet", May/June 2001: 27-29.
- Pierce Butler. 1953. "bibliographical function of the library", *Journal of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9(7): 3-11